

# 광주·전남 큰 눈... 최고 30cm

## 대설경보, 강풍·풍랑주의보... 기온 '뚝' 항공·여객선 결항... 국립공원 입산 통제

구립 31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몰아닥쳤다.

폭설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의 결항도 속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긴급 제설작업을 벌이는 한편, 비닐하우스 붕괴와 농수산물 냉해·동사에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설경보 발령=광주지방기상청은 구립 30일 새벽 4시40분을 기해 광주시와 나주·담양·곡성 등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낮 현재 광주 19.5cm를 비롯해 나주 18cm·장성 16.0cm·담양 15.0cm·화순 12.0cm·순천 11.0cm 등 평균 5.8

cm의 폭설이 내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설차 300여 대와 제설인력 1천400여명을 동원해 열화칼슘, 모래 등을 이용, 긴급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구립 29일엔 광주,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 황사가 발생했다. 12월에 황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1년 12월 13일 이후 6년여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몽골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항공기·여객선 결항 잇따라=폭설과 함께 구립 30일부터 광주·전남에는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24m(신안군 흑산도)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과 바닷길이 막혔다.

광주공항의 경우 이날 항공편 10편이 결항됐으며, 뱃길도 목포·여수항 등 47개 항로 70척의 여객선 중 42개 항로 61척의 여객선 운행이 통제됐다.

◇눈길 교통사고=구립 30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가톨릭대학 평생교육원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운전자 이모·여·47)와 투싼 승합차(운전자 백모·22)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께에도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도로 커브길에서 이모(여·46) 씨가 운전하던 무쏘 승합차가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구립 30일 오전 7시40분부터 전남·북 지역 등산로를 통한 등산객들의 입산을 전면 통제했다.

/광림상기자 kps@kwangju.co.kr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폭설이 내린 구립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공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들이 눈을 폭 뒤집어선 채 출몰이 늘어서 있다.

/위직량기자 jwi@kwangju.co.kr

**낙상 조심**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다.

**1월 1일**  
(음 11월 23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고 눈	-3~2℃
목포	구름 많고 눈	-1~3℃
여수	구름 많고 눈	-1~4℃
완도	구름 많고 눈	-1~3℃
구례	구름 많고 눈	-5~3℃
해남	구름 많고 눈	-2~3℃
장흥	구름 많고 눈	-3~3℃
홍천	구름 많고 눈	-2~4℃
순천	구름 많고 눈	-5~3℃
영광	구름 많고 눈	-2~2℃
진도	구름 많고 눈	-2~2℃
전주	구름 많고 눈	-4~1℃
남원	구름 많고 눈	-6~1℃
흑산도	구름 많고 눈	-1~2℃

서해남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3.0~5.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3.0~5.0m  
남해서부  
안바다=서~북서풍 파고 3.0~5.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3.0~6.0m

▲해돋이 07:40 ▲해질 17:30 ▲달돋이 00:05 ▲달질 11: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날씨					
최저/최고	-5/4	-3/7	-3/8	-1/7	0/8

## 내집 앞 눈 안쓸면 낭패 본다

### 광주지역 조례 시행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대설특보가 내리진 광주·전남에서 자신의 집 앞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속칭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낮 시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밤중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범위는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물에 접한 도로의 1.5m까지, 골목길 등 보도는 건물 앞 전체로 만약 눈을 치우지 않아 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주요 관공서와 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통·반장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과 부녀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눈 치우기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 하계 U대회 유치 후보지 확정

### 이달 범국민유치위 구성... 국제 유치전 본격 시동

광주시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내 유치 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구립 30일 "세계 대학생들의 우정과 화합의 스포츠 제전인 2013년 하계U대회 유치도시로 광주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가간 유치경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9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유치 신청을 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 용역과 문화관광부 승인 등을 거쳐 구립 28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후보지 승인과정에서 국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광주시의 확고한 의지와 시민들의 열의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를 '서남권 제1의 국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정부 승인에 따라 이달 중순 정·관계와 경제, 체육계 인사 등을 망라한 200여명으로 범국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 계획이다.

2013년 하계U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과잔, 캐나다 에드몬톤·퀘벡,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 무르시아·비고 등 5개국 7개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하계 U대회 개최지로는 2009년에 베오그라드, 2011년에는 중국 선전 등이 확정됐으며 2013년 후보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신청서를 접수, 현지실사를 거쳐 5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선다

###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도

광주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分館)과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등 대규모 문화기반시설들이 건립된다.

구립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비 10억원과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운영비 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3만3천㎡의 부지에 연면적 4만㎡ 규모로 기본·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09년 착공, 2011년 하반기 완공되며 국비 1

천300억원이 투입된다.

분관은 자료보존관, 열람실, 소공연장, 전시실, 지역특화 자료실 등이 들어서며 디지털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된 디지털 도서관으로 건립된다.

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은 10만㎡의 부지에 연면적 6만㎡ 규모로 국비 1천300억원을 들여 오는 2009년 착공, 2011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게임·애니메이션 산업기반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새정부 출범전이라도 유류세·휴대전화비 인하”

### 인수위, 서민생활비 절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구립 30일 현 정부 임기내에 유류세와 휴대전화비 등 주요 서민생활비의 30%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워크숍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정권 출범전이라도 현 정권과 논의해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현재 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재정투·융자 등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의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정 중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 “일자리 창출은 20세기 굴뚝형이 아니라 금융과 문화, 미디어산업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정책개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구립 29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첫 워크숍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인수위 역점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 2020년 농가인구 10명중 6명 60대 이상

### 농가인구도 4.7%로 감소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0년 농가인구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없다면 농업 중심의 농촌사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을 받아 작성한 '2005년 농림어업조사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전국 농가인구를 연령별로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구립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05년 현재 343만3천753명에서 2010년 296만825명, 2015년 260만2천257명에 이어 2020년에는 234만2천26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2008 謹賀新年

한빛고시학원 (북구정암 234-0234)

김영면입·PMS학원